

참고1

참가신청서(예시)

안전숏폼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신청서 [외부용]

성명	홍길동	연락처(휴대폰)	010-1234-1234
		이메일 주소	safesafe@safe.com
주소	대전광역시 신탄진로 200		

I. 제목

한석봉 어머니의 진짜 가르침

II. 취지 및 의미

- 전래동화를 빌려와 "아무리 익숙하고 자신 있는 일이라도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" 라는 것을 전달

III. 줄거리

- 등장인물: 한석봉, 어머니 / 장소: 집안, 밤
 어느 날 한석봉은 자신의 글씨 실력이 크게 늘었다며 자랑을 했다. 그러자 어머니는 등불을 끄고 본인은 떡을 썰 것이니, 글을 써 보라고 하셨다. 한석봉은 자신 있게 붓을 들었다. 그러던 중, 어머니가 갑자기 칼을 내려놓고 등불을 켜다. 그러고는 말씀하셨다. "아무리 익숙한 일일지라도, 어둠 속에서는 위험하다. 실력이 중요하지만,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안전이란다. 한석봉은 그 말을 듣고, 잘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.

IV. 활용 동의 등

응모작의 저작권 및 활용권은 **응모자와 안전본부에 귀속되며**, 상호 협의하에 홍보·캠페인 등에 활용될 수 있고, 안전본부에서 필요시 수정·보완하여 제작·활용할 수 있음

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함 성명 : (인)

세부 줄거리 (선택사항)

장면 1

[어두운 방, 등불이 켜져있다.]

한석봉: 어머니! 이제 제 글씨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

어머니: 그래? 그럼 오늘 한번 시험해 보자꾸나.

장면 2

[어머니가 등불을 끈다. 방 안이 어두워진다.]

어머니: 너는 글을 쓰거라. 나는 떡을 썰마.

한석봉: 좋습니다.

[한석봉은 붓을 들고 집중한다. 어머니는 칼을 들었다가 멈춘다.]

장면 3

[정적. 잠시 후, 탁 소리와 함께 등불이 켜진다.]

한석봉: 어머니? 왜 다시 불을 켜셨나요?

어머니: 아무리 익숙해도, 어두운 곳에서 칼을 쓰는 건 위험하단다.

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. 잘하는 것보다, 다치지 않는 것이 먼저란다.

장면 4

[한석봉이 고개를 끄덕인다.]

한석봉: 이제 알겠습니다. 익숙한 일도 방심하면 위험하군요.

어머니: 그래. 어둠 속 자신감보다, 밝은 곳의 안전이 더 중요하단다.

엔딩자막: “익숙한 일일수록 안전이 먼저!” “방심하지 말고, 안전하게!”

※ 분량은 제한 없으며, 완성도를 위해 콘티 추가 제출도 가능



